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에 근거한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 고찰*

장 지 원**

교육과정 연계에 있어 음악과의 경우 통합교육 관점에서 횡적 조직으로서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적 조직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초, 중등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으로 이루어진 타일러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에 근거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의 의미를 정립하고, 이 중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연계성을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내용 영역과 기준'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 중등학교급간 연계를 위해서는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영역과 요소들의 지속, 심화, 확충, 통합을 통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전달체로서의 제재곡을 중심으로 한 연계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초, 중등 교사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연계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이 구체적인 음악과 연계성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효과적 음악 연계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교육과정 조직원리,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 초, 중등 학교급간 연계

차 례

I. 서 론

II. 초,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 탐색

1. 계속성(continuity)
2. 계열성(sequence)
3. 통합성(integration)

III.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4S1A5B5A0)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I. 서론

교육의 연계는 서로 다른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줌으로써 변화된 교육 환경에 학습자들을 빠르게 적응하게 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는 교사양성 구조,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다양한 형태에서 학교급간 또는 학년간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2000년대 들어 통합과 창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교과간 혹은 교과내 연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연계는 교과서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주제 탐구학습의 역할이 늘어나며, 학습내용의 다양화가 강조되는 최근 교육의 추세 속에서 그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황규호, 2013).

2015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계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계성 연구는 의미와 역할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13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제시된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다각적인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횡적으로는 교과내, 교과간 내용의 적절성을, 종적으로는 시간상 유, 초, 중등학교에 걸친 학습내용의 계열성이라고 풀이하고 있다(김진숙 외, 2013).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6가지 검토 기준 중 연계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교급간 및 학년간, 교과내용 영역 간 및 단원간의 수평적(범위) 및 수직적(계열) 연속성과 위계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진숙, 2013). 국가교육과정은 이렇듯 학년간과 학교급간의 종적 연계와 교과내 교과간의 횡적 연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교육과정 연계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의 적절치 못한 연계조직은 교육내용의 불연속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학습시간의 낭비와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 저하 또는 암기식 학습방법으로 인한 창의적, 논리적 사고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강봉규, 2009: 김영신, 2009: 김진숙, 2013: 김진숙 외, 2013: 황규호, 2009: 황규호 2013). 다시 말해 연계성은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구조적 기능적 의미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한 교육과정은 결론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 즉 종적, 횡적 연계성은 모든 영역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년간, 학교급간 종적연계와, 교과간, 교과내의 횡적연계로 나뉘는 교육과정 연계에 있어 음악교과를 포함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통합교육과 관련한 교과내, 교과간 횡적연계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음악과에서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송주현, 2013; 최은식 외, 2015)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종적연구의 개념 보다는 횡적연구의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김영신(2009)은 우리나라의 교과 내용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반복적이면서 심화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 목표들 간의 학년간, 학교급간 구체적 연계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종적 연구에 있어서도 학교급간 보다는 학년간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 또한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각 학교군 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학교급간, 유-초등학교간 또는 초-중등학교간 그리고 중-고등학교간의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앞서 설명한 다른 횡적 또는 학년간 연계영역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세 단계, 즉 유-초등학교간, 초-중등학교간 그리고 중-고등학교간 각각의 학교급간 연계성에 관한 최근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승미(2010)는 이 중 유-초등 학교급간 연구는 학교의 시작이라는 초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아직 학교 이전의 단계라는 유치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구분된 유-초등 구조로 인해 단절된 교육연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초등 교육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곧 연구의 동기가 되어 나머지 학교급간의 연구에 비해 그나마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송혜순, 2012; 이강석, 2010; 황세윤, 2012). 그리고 황규호(2013)는 중-고등 학교급간 구조에서의 연구는 변화된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교육과정에 따라 중등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과정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며 중-고등 학교급간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진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이기에 그 관심 또한 높아 최근 들어 조금씩 연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중등의 관계는 이미 교육과정에 있어 유-초등이나 중-고등 학교급간과는 달리 하나의 성취기준 범위 내에 단계별로 놓여있고, 앞서 설명한 유-초등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처럼 드러난 확연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쉽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장지원(2013)은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에 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의 교사양성 구조는 분화되어 초, 중등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연계와 관련된 교류나 공조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황규호(1999)는 초, 중등에 있어 수업 방법상의 연계성 문제도 제기한다. 그는 개방적인 사립 초등학교의 수업 분위기에서 변화된 공립 중등학교의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일부터 공립학교로의 전학 사례를 들며 이는 학부모들에게 교수방법

의 연계성 유지가 바람직한 교수-학습 분위기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개방적 수업 분위기와 확대된 교수방법이 중등 학교에서도 그 연계성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초, 중등 학교급간 연계는 그 의미가 확연하다 하겠다.

최근 들어 초, 중등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성의 연구는 미흡하나마 여러 교과목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져 왔다(김영신, 2009; 김진숙 외 2013; 백경선 외 2012; 이승미, 2010; 황규호, 1999). 이 중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3년 연구과제로 다룬 국가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김진숙, 2013)을 살펴보면, 초, 중등에서 다루어지는 10개의 교과목 중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순위에서 음악교과는 도덕, 미술교과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또한 초, 중등 수석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가 잘 되지 못한 교과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도 초, 중등학교 음악교과가 선정되었으며 ‘음악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정서와 요구수준에 맞지 않고 장르별, 수준별로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의 음악 교육과정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들 중 교육과정 연계를 방해하는 측면과 그 사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집중이수제로 인한 임시위주의 교과 편성 운영으로 인해 음악과를 포함한 예체능 교과의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교과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실정이 곧 학교급간, 학년간의 연계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김진숙, 2013). 장지원(2013)은 초,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개념을 그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나 관련 음악교과서는 제재곡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어 효과적 연계 학습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음악교사에게는 두 중심 기준의 접점을 맞춰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분리된 교사양성 체제도 두 학교급간의 연계성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초, 중등교육에서 핵심적인 연계성의 원리가 여러 관점에서 미흡하게 적용된 교과가 음악과를 포함한 예체능 교과라는 현장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념적, 의미론적 정의에 대해 음악과의 특성과 관련되어 검토되지 않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관련 연구 또한 타 교과에 비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질 높은 초, 중등 음악교과 연계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의 의미와 개념을 음악과 특성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어떠한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

는지에 대해 방법론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황규호(1999)는 교육과정 연계성의 의미는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관계의 종류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는 이를 교육내용의 조직 원리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내용 조직 원리는 지금까지의 연계성 관련 주제를 다룬 황규호(1999)와 김영신(2009)의 연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연구보고(김진숙, 2013; 김진숙 외, 2013; 황규호, 2013) 등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다루어진 교육내용 조직의 원리는 모두 타일러(Tyler)의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타일러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일러는 종적 조직원리로서 계속성(continuity)과 계열성(sequence)의 원리를 그리고 횡적 조직원리로서 통합성(integration)의 원리를 제시한다(Tyler, 1949). 이러한 타일러의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는 앞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검토 기준을 통해 제시된 수평적, 수직적 연속성과 위계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 또한 구체적으로 탐색되고 다각도로 연구되는 것은 앞으로 초, 중등 음악교과의 연계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본적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타일러의 원리가 넓은 범위로서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틀이라는 점과 앞서 제시한 최근의 교육과정 연계성 관련 선행 연구들이 타일러의 원리에 근거하여 다루어졌기에 본 연구 또한 초,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의 의미를 타일러의 조직의 원리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영역, 교수-학습 방법, 목표, 평가를 모두를 포함하여 다루기보다는 관련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들에서 연계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 주제, 인지적 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영역과 기준’ 부분을 중심으로 초, 중등 학교급간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며 초 중등 학교급간이라는 의미적 제한을 두었기에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어지는 초등5-6학년에서 중등1-3학년 영역으로 연구의 제한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을 우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위한 기준으로 보고, 이를 타일러의 3가지 조직 원리인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을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

로써 음악과 초, 중등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에서 현장 교수-학습으로 이어지는 초, 중등 음악과 연계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필요한 근본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초,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 탐색

1. 계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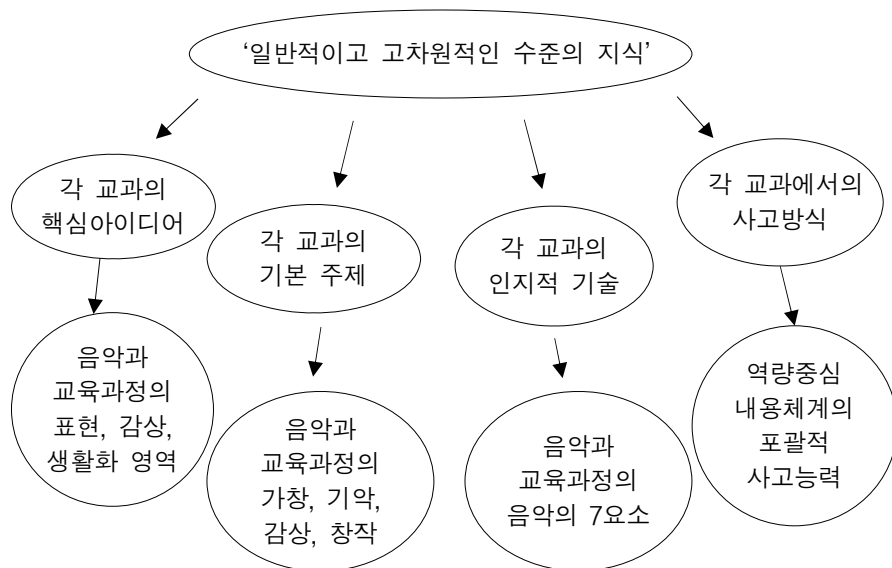
1) 일반적 의미

타일러(1949)는 계속성이란 중요한 교육과정 요소를 수직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강봉규(2009)는 이것을 같은 요소, 지식, 기능 등의 교육내용이 두 개의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선정되고 조직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의미 있는 학습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적기능이나 가치에 학습자가 계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다시 2007개정 교육과정 검토 기준에 연결시켜보면 유, 초, 중등학교에 걸친 학년간, 학교간에 따른 계속적인 교과내용간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속성의 기준, 다시 말해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실적 지식’ 중심의 반복과는 다른 ‘기능영역’중심의 반복을 수용하고 있고(이용숙 외, 1995), 영국의 경우, 타일러가 반복되어야 할 주요 학습 요소의 예로 제시한 개념, 가치, 기능적 요인을 근거로 각각의 주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타 교과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계속성과 관련하여 반복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단편적 사실’이나 ‘사실적 지식’ 보다는 각 교과마다의 핵심적 아이디어, 기본주제, 사고방식, 또는 인지적 기술 등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으로 규정되고 있다(황규호, 2013). 이러한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이란 각 교과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심화를 통해 교과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 심화와 확충을 거치며 교육과정 내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음악과에서의 계속성

초,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 제시된 일반적인 계속성의 기준인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이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최은식(2015)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요목중심, 성취기준 중심 그리고 역량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우선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의 맥락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영역을 대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영역인 가창, 기악, 감상, 창작영역을 기준으로 두고 가르쳐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을 요목중심으로, 학생이 도달해야할 능력과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취해야 할 기준과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성취기준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학습을 역량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역량중심의 내용체계의 경우 최근 들어 서서히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역량에 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의 의미를 이러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근거하여 고찰해 본다면 다음 제시된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

우선 음악교과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음악과에서 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적 구분인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초등), 이론(중등)으로 명명되는 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우리나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대영역으로써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주제’는 내용체계에서의 기본적인 학습영역으로 구분된 가창, 기악, 감상 그리고 창작으로, 그리고 ‘인지적 기술’은 현 교육과정에서의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제시된 기본적인 음악의 7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이고 고차원적 지식 중 ‘사고방식’의 경우는 역량중심 내용체계의 핵심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능력은 교육과정에서 횡적으로 연결된 내용체계를 이끌어 종적으로 누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성의 관점으로써 이 후 3장에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체계는 음악교과에서의 ‘일반적이고 고차원적 수준의 지식’ 모두를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수용되지 못한 사고방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교과의 핵심을 어느 정도 타당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학년간 또는 학교급간의 계속적인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성취의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학교급간 반복되고 있는 구체적인 영역과 요소들이 또한 어떻게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 교육과정에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음악과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내용 체계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그리고 중학교 1-3학년군으로 이어져 있으며 각 학년군에 맞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학년군에는 학습되어야 할 음악요소와 개념체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사실적 지식’이 아닌 ‘기능영역’ 또는 ‘고차원인 수준’의 지식은 [표 1]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아우르며 변치 않고 반복되는 내용인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인지영역에서 독립된 음악요소 및 개념체계에 기본으로 확정되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음악의 7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그리고 음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제적으로 살펴보자면, 초-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 음악의 7요소 중 ‘화성’과 관련되어 제시된 개념 체계는 ‘소리의 어울림’ 초등학교 3-4학년군,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과 ‘주요3화음’ 초등학교 5-6학년군, 그리고 ‘다

양한 소리의 어울림' 과 '딸림7화음' 중학교 1-3학년군 처럼 영역과 주요요소 그리고 개념체계가 일반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다.

국, 영, 수와 같은 주요 교과 역시 초-중등 학교급간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주요영역과 요소 그리고 개념체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계성과 관련된 타 교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물영역의 경우 김영신(2009)의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적 아이디어나 기본 주제라 할 수 있는 주요 개념들이 교과서에서 각 단원으로 설정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김영신의 연구는 초, 중등을 통해 심화 발전되어야 하는 이러한 주요 개념들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나타나고 이것이 교과서를 통해 교육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갔음을 보여준다. 반면 도덕 교과의 서강식(2010)의 연구는 이러한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도덕과의 주요 개념들이 교과서의 단원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방법까지 도출 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도덕 교과와 마찬가지로 음악과도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개념과 요소들이 교재 단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음악과의 경우는 제재곡이 그 단원을 구성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초, 중등 연계가 현장의 교수-학습까지 이어지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다 하겠다. 이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 그리고 교사 양성체계 간의 미흡한 유기적 연계의 문제를 드러내며 이것은 곧 학습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에 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속성 관점에서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제재곡 구성 면에서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재곡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연계되어야 할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수준'을 담아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전달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재곡은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을 모두 다루며 동시에 음악 요소와 개념체계를 포함한다. 때문에 이러한 연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음악과에서의 학교급간 계속성은 타 교과와는 달리 '제재곡'이 그 연계선상에 포함되어 계속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서 제재곡은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영역과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교육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달체'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에 근거한 제재곡 선정에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곡'에 대한 계속성 관점에서의 교사의 이해와 분석이 효과적 교수-학습방법으로 연결되

어야 하며 초, 중등 교사들 간의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계속성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열성

1) 일반적 의미

계열성이란 학습의 요소가 반복되면서 교육내용의 요소, 지식, 기능과 같은 후속 학습경험이 전 단계의 학습경험보다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심화 과정을 지칭한다(Tyler, 1949; 황규호 1999). 앞선 계속성이 종적 관계에서의 공통성을 의미한다면 계열성이란 종적 관계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심화와 확충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황규호(2013)는 타일러의 계열성을 ‘학습자의 성장’과 ‘학습의 효율성’ 측면과 관련지어 이를 교육과정에서 계열성 원리의 적용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계열성 원리에서 중요시하는 교육내용의 ‘심화’와 ‘확충’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 지고 다루어졌을 때 결국 학습자들의 인지능력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성의 원리에서 의미하는 전, 후단계의 교육내용이 효율적으로 ‘심화’되고 ‘확충’된다면 학습자들이 후단계 학습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학습의 개념들 사이의 위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내용의 난이도 수준을 올바르게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음악과에서의 계열성

앞서 설명한 계열성의 의미와 원리 기준을 근거로 초,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앞서 계속성의 원리에서 밝힌 음악과에서의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인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음악의 7요소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영역은 2009 음악과 개정안에 학년군별 성취 기준과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내용영역과 기준을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그리고 중학교 1-3학년군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어지는 학교급간 연계를 중심으로 하기에 그 영역을 초등학교 5-6학년군과 이어지는 중학교 1-3학년군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초등학교 5-6학년군과 중학교 1-3학년군에서 다루어진 영역 중 일부 성취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5-6학년군과 중학교 1-3학년군별 성취기준 중 일부

영역	내용체계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표현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바른 자세와 정확한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악곡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상황이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감상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우리음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세계 속에서 우리 음악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표 1>의 표현영역에서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의 5-6학년군과 중학교1-3학년군을 보면 ‘정확한’이라는 한 단어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실제 초등학교 악기수업에서 학습목표들은 ‘정확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로 교사에 의해 작성되거나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를 보면 5-6학년군에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와 중학교 1-3학년군에 ‘악곡의 종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로 제시된다. 두 문장에서 음악적 의미로써의 ‘심화’ 또는 ‘확충’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감상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와 중학교 1-3학년군의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 또한 심화되거나 확충되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현장 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3학년군에서의 음악적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심화과정이라고 여겨지기 힘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교육과정을 만들 때 계열성만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관점과 여러 영역에서의 다각적 접근으로 계획되고, 효과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 1>에서 다루어진 표현들은 성취기준의 의미에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간 연계성의 관점에 기준을 두었기에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을 계열성 기준에서 해석하고 나타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하게 계획되고 구조화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성취기준의 표현방식은 ‘심화’와 ‘확충’이라는 계열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표 2>는 교육과정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나타난 7요소 중 ‘셈여림’과 ‘빠르기’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5-6학년군과 중학교 1-3학년군의 ‘빠르기’와 ‘셈여림’에 대한 제시에 있어 ‘심화’나 ‘확충’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조차 단지 ‘빠르기’ ‘셈여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2> 음악교소 및 개념 체계표 중 ‘빠르기’와 ‘셈여림’

	초등학교 3-4학년군	초등학교5-6학년군	중학교1-3학년군
빠르기	빠르기	빠르기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
셈여림	셈여림	셈여림의 변화	셈여림의 변화

타일러의 계열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제시는 학습의 효율성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단순 제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 중등교사 간의 긴밀한 상호 교류나 각 학년 제재곡에서의 빠르기와 셈여림에 대한 구체적 제시만이 학교급간 연계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표 1>과 <표 2>를 통해 나타난 계열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교육과정에서의 제시 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열성의 기준은 교육과정에서 교육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앞서 계속성에서 밝힌 교과서에 나타난 제재곡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제재곡 관련 대안은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을 교육현장으로 가져오는 전달체로써의 교과서 제재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선택되는 제재곡들은 아이들의 음악적, 인지적 발달단계에 맞춰져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각 학교급간 제재곡은 전혀 다른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곡 선택에 있어 앞서 황규호(2013)가 제시한 전,후 단계에 있어 교육내용의 심화와 확충에 근거하여 접근해 본다면, 전, 후단계에 자체적인 심화와 확

층을 거친 단일한 제재곡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단계에 사용되어진 주요 개념들을 포함한 제재곡을 후단계에서 심화된 형식이나 구조로 편곡하여 재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단계의 학습자는 이미 전단계에서의 학습을 통해 제재곡의 기본적 틀과 내용을 숙지한 후, 후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심화 학습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학습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성

1) 일반적 의미

계속성과 계열성이 종적조직에서의 내용적 의미를 설명한다면 통합성은 횡적조직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타일러(1949)는 통합성의 원리는 교육경험의 통합성에 따른 누가적인 효과(cumulative effect)를 가져 오며 교과간 내용의 통합으로 상호 교과지식의 강화와 관점적용 범위의 확대 그리고 통일된 관점형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90년대 포가티(Fogaty)나 케이스(Case) 등은 이러한 수평적 통합성의 개념을 수직적 통합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여 풀이하고 있다. 케이스(1994)는 교육과정 접합성 프로젝트(CAP; Curriculum Articulation Project)를 통해 접합성의 개념을 수직적 통합성으로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교사들이 얼마나 잘 수행하여 교육개혁을 이루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상황에서 지식간의 관련을 맺음으로써 문제해결에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교과간 혹은 교과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교과나 교과 영역간의 교육효과는 상쇄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단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육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가티(1991)는 10가지의 통합모형을 통해 교육과정의 통합방식에 다양한 관점과 방식을 제시하고 통합적 학습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교과에서 중심 되는 주제나 내용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식의 효과에 대해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과목간의 중복에서 오는 지식의 효과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내 영역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과내 통합의 과정은 포가티와 케이스가 주장한 교과내 지식들과 내용들 간의 통합으로써 이것이 교사들의 수행능력에 의해 누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수직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들 간의 관련맺음으로 일상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안목의 극대화가 능가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계속성과 계열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 중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고방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2) 음악과에서의 통합성

앞서 고찰한 통합성의 의미를 음악과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서 중심 되는 주제나 하나의 개념을 기준으로 학습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타 교과와의 경우 이러한 중심 개념이나 주제가 곧 교과서의 단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과내 통합성 원리를 적용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설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렇지만 음악과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음악의 개념이나 내용체계가 주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제재곡을 기준으로 구성된 교과서의 단원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음악교과가 횡적 구조로써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영역간의 연계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중심 되는 음악적 개념과 주제가 영역간의 연계 내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교과내 통합에는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주제나 개념 중심으로 묶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즉, 통합성의 측면에서도 계속성과 계열성에서 제시된 교과서의 제재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재곡은 우선, 음악과의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제재곡이라는 하나의 중심 안에 포함할 수 있고, 둘째 음악적 개념이나 주제를 담아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이나 계획을 수행하기에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을 잇는 전달체로써의 역할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앞서 설명한 ‘사고방식’ 즉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적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사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일러는 교과간의 통합에 대해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포가티 등과 같이 교과간 나아가 교과내 종적 통합성에 관한 많은 연구 또한 진행되고 관련 교수법이 여러 교과를 통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음악과에서는 다양한 교과간의 통합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반면 케이스가 밝힌 수직적 통합의 개념에서의 교과내 통합에 대한 연구는 이에 비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성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엮어줄 도구와 중심이 될 개념과 주제의 선정 그리고 관련된 방법론적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Ⅲ. 나가는 말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정을 담은 교육과정에 있어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의 효과적 연계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은 종적으로 학년간, 혹은 학교급간의 관계로, 횡적으로는 교과간, 또는 교과내에서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교과의 경우 통합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횡적구조로서의 연계성이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종적 개념으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음악과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교급간의 연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초, 중등 연계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해 타일러가 제시한 세 가지 교육조직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았다.

타일러의 교육조직의 원리 중 종적조직의 하나인 계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초, 중등 음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이고 고차원적인 지식’ 수준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과 음악적 요소와 개념체계에 들어있는 음악의 7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과 음색이 함께 초, 중등을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이러한 세 개의 영역과 음악의 7요소를 계속적으로 포함하여 드러낼 수 있는 교과서의 ‘제재곡’이 그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계속성에 관련한 ‘제재곡’ 선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계열성의 원리는 우선, 초, 중등 학교급간 계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음악적 요소와 개념들이 표현, 감상, 생활화 세 개의 영역과 음악의 7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화’되고 ‘확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심화’와 ‘확충’의 단계가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계열성의 관점을 고려한 표현, 제시 방식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이는 초, 중등 교과서에서의 단일 ‘제재곡’의 ‘심화’, ‘확충’을 목적으로 한 편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성장과 학습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계열성의 원리를 충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성의 원리는, 우선 일반적인 횡적조직인 교과내 통합을 케이스의 수직 구조인 접합성 프로젝트(CAP)의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음악과의 표현, 감상, 생활화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영역이 교사의 수행능력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포괄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종적 통합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 영역을 묶어줄 수 있는 도구와 영역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요 개념이나 요

소의 선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지며 이는 또한 초, 중등 연계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일러의 조직의 원리에 따라 정리된 초, 중등 학교급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연계는 첫째,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영역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음악요소 간의 지속, 심화, 확충 그리고 통합적 초, 중등학교급간 연계를 의미한다. 둘째, 제재곡을 통한 초, 중등 학교급간 연계이다. 이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인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전달체로써의 ‘제재곡’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교육과정 전체 영역과 관련한 포괄적이며 동시에 세부적인 연계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 중등 교사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의 연계이다. 각기 다른 교사 양성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악적 능력의 차이가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목표하는 학습의 효과나 학습자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고찰이 음악과의 연계성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효과적인 음악과 연계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대현 (2011).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대현 외 (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강봉규 외 (2009).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태영출판사.
- 김영신 외 (2009). 제7차 교육과정의 초, 중등 생물 수업 목표의 연계성 지도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9(6), 693-711.
- 김진숙 (2013). 교육과정 연계의 현황과 과제.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과제 ORM 2013-36.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김진숙 외 (2013).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보고 RRC 2013-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민경훈 외 (2013).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백경선 외 (2012). **초, 중학교 저학년 국어, 수학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 RRC 2012-30).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 서강식 (2010). 도덕, 윤리와 교육의 초,중등 연계방안 모색 - 도덕, 윤리와 교육과정의 변천 분석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32, 151-182.
- 송혜순 (2012).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비교분석과 대안적 예술 융합 교육활동 탐색, **무용역사기록학**, 24, 75-90.
- 송주현 (2013). 독일 함부르크 주의 역량중심 음악교과교육과정 개발 사례 탐색. **음악교육연구**, 43(2), 25-45.
- 이승미 (2010).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28(2), 59-90.
- 장지원, (2013). 초, 중등 예비음악교사들의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포괄적 인식 조사, **예술교육연구**, 11(2), 47-61.
- 최은식 외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유형 고찰. **음악교육연구**, 44(1), 111-139.
- 황규호 (1999). 초,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검토 과제, **교육과정연구**, 17(1), 167-192.
- 황규호 (2013).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방안. 국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과제 ORM 2013-3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세윤 (201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새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계성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32(5), 321-344.

- Case, K. I., Weinholtz, D. & McGivney, R. (1994). Sharing the vision: Curriculum articulation in math and science K-U in an urban school district. ERIC ED375209.
- Fogarty, R. (1991). Ten Ways to Integrate Curriculum. *Educational Leadership*, 49(2). 61-65.
-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해명 역(1987)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Connec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usic Curricula Based on Tyler's Theory of Education

Ji-Won Cha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curriculum ar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curriculum and it should be generally accepted and applied as a vertical concept between the grades or the schools, and as a horizontal concept in or between the courses. In the case of the music course, th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of the programs as the horizontal system have been relatively fully conducted but the researches as the vertical system on the integrated education have been insufficiently dealt with, although there are needs from educational fields. Therefore this study is to found the concept of the connection of music course between school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by Tyler,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usic connection programs by searching the connec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usic curricula,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ward for music education.

Key words: music curriculum, connec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투고일: 2015년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25일(10월 28일), 게재확정일: 11월 14일